

넷플릭스 미국 가입자 감소 ... 주가 폭락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업계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지켰지만 미국 가입자 수가 8년 만에 감소해 주가가 폭락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2분기 미국 가입자 수가 1분기와 비교해 13만 명 줄었다. 넷플릭스의 미국 가입자가 줄어든 건 구독자들이 완전히 외면해 끝내 폐기된 요금제 모델이 등장했던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가입자는 270만 명 늘었지만 시장 전망치인 500만 명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 넷플릭스는 글로벌 가입자 550만 명을 추가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6,010만 명, 미국 외 국가에서 9,15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전 세계 구독자는 1억5,160만 명인데 이는 넷플릭스의 전망치(1억5,390만 명) 보다 적은 수치다. 이 여파로 넷플릭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0% 넘게 폭락했다.

넷플릭스의 2분기 매출은 49억2,000만 달러로 1년 사이 26%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49억3,00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순이익은 2억7,100만 달러로 30% 줄었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고한 대로 "스트리밍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 넷플릭스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앞서 여러 콘텐츠 기업과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 시청률 2위인 TV 시리즈 '프렌즈'의 판권을 가진 AT&T의 워너미디어, 시청률 1위 '더 오피스' 판권을 보유한 NBC유니버설, 어벤져스' 시리즈를 제작한 마블 스튜디오를 거느린 월트디즈니, 애플 등이다.

해당 기업들이 자사 콘텐츠를 독점 스트리밍하겠다고 밝히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 다수의 콘텐츠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브라 출시 연기에 비트코인 가격 급락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출시가 결국 무기한 연기된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약 30% 하락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페이스북이 야심 차게 내놓은 리브라 출시 계획이 가장 인기 있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꺾어버렸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9,3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직전주 1만3,000달러를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던 데 비하면 28%가 하락한 셈이다.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리브라를 내년 출시해 사용자들이 송금·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리브라는 달러에 연동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투자 수단에 머물렀던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초기에는 이 소식이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

지만 이내 20억 명 넘는 이용자를 거느린 페이스북이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새로운 은행법을 만들어 다른 국내외 은행처럼 모든 은행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테러 금융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16일 열린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안정된 (리브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이 충족되고 적절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비판, 의회의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 등 정부의 강한 규제 의지가 암호화폐 거래 위축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이케아, 미국서 철수 운영비 비싸 유럽으로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가 유일한 미국 공장을 폐쇄한다. 미국 공장 운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이다.

1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케아는 버지니아주 댈벌에 있는 공장을 올해 말 폐쇄하기로 했다. 공장이 폐쇄되면 300개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 이로써 이케아는 11년 만에 미국 생산시설을 접게 됐다.

앞서 이케아는 2008년 미국과 캐나다 시장을 겨냥해 목재 선반, 장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댈벌에 세웠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아 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댈벌에서 장기적으로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비용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미국 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비용이 저렴한 유럽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 유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입하는 형태로 북미 비즈니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용 측면에서 이러한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스웨덴 기업인 이케아는 현재 유럽, 중국, 러시아에서 40여 개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다. 생산직 2만여 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6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이케아는 7,500개 일자리를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케아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미국 공장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경제 성장,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로즈메리!

라미라다 \$62만 방4/화2, 건평 약 1,500sf 새지붕, 큰 RV파킹 파크, 도서관, GYM 바이올라대학 가까움	라미라다 \$38만 방1/화1, 건평 약 810sf 단층 콘도 프리웨이 57,91,5번 이용가능 가까운 쇼핑, 골프장	브레아 \$53만 방3/화2, 건평 약 1,500sf 2층집 좋은 학교 다운타운 도보거리	브레아 \$39만 방2/화2, 건평 약 910sf 단층 콘도 도보거리 학교 메디칼센터 가까움	부에나 파크 \$44만 방3/화2, 건평 약 1,100sf 단층 콘도 낮은 HOA 차 2대 그라지, 리모델링
플라센티아 \$67만 방3/화2, 건평 약 1,500sf 단층 콘도 업그레이드 잘된 집 좋은 학교	플라센티아 \$51만 방3/화2, 건평 약 1,200sf 단층 콘도 아름다운 조경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방	플라센티아 \$60만 방4/화3, 건평 약 2,000sf 이층 콘도 테니스장 싼 HOA	요바린다 \$42만 방2/화2, 건평 약 1,100sf 생나무 마루 단층 업그레이드 완벽	요바린다 \$54만 방3/화2, 건평 약 1,400sf 업그레이드 완벽 좋은 학교

